

예향 빛고을 클래식 음악의 향연 속으로

유·스퀘어 문화관 4월 공연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슈베르트
브랜든 죄×박종해 라흐마니노프

완연한 봄의 시간 4월,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클래식 무대가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임동민 리사이틀과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죄의 라흐마니노프 듀오 리사이틀이다. 브랜든 죄는 4월 8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라흐마니노프 앵콜 콘서트'에 앞서 광주에서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호흡을 맞춘다. 임동민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전국 10개 도시 투어를 하며 광주에서 무대를 펼친다.

피아니스트 임동민 리사이틀은 오는 4월 14 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2019년 쇼팽&슈만 피아노 리사이틀 이후 4년 만의 무대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슈베르트'다.

임동민은 그동안 끊임없이 탐구해 온 슈베르트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즉흥곡' 전곡과 피아노 소나타 D.960을 선곡했다. 그의 국내 데뷔 이래 처음으로 오직 슈베르트 작품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피아니스트 임동민은 1996년 국제 영 쇼팽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비오토 국제 콩쿠르 3위, 부조니 콩쿠르 3위, 차이콥스키 콩쿠르 5위, 프리하 봄 국제 콩쿠르 2위 등 세계 콩쿠르를 휩쓸었다. 2005년에는 한국인 최초 쇼팽 국제 콩쿠르 3위에 올라 또한 번 그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한국인 최초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쇼팽 콩쿠르를 동시에 입상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임동민은 "슈베르트 작품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특히, 피아노 소나타 21번은 슈베르트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에 작곡해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완성한 곡이기에 비극, 사색, 슬픔, 고독의 감정이 더욱 부각되는 작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슈베르트는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승화해 환희와 기쁨을 표현해서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면서 "슈베르트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작곡가"라고 슈베르트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4월 5일 오후 7시 30분에는 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죄의 라흐마니노프 듀오 리사이틀이 열린다.

브랜든 죄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서거 80주년을 맞아 두 명의 탁월한 피아니스트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으로 리사이틀을 마

련했고 광주 무대는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함께 한다.

브랜든 죄는 지난해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와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작품들로만 구성된 앨범 'Rachmaninoff'를 발매했다.

그는 테너, 알토, 바리톤, 베이스, 4성부를 갖추고 있는 색소폰의 특성을 활용, 각 곡에 어울리는 서로 다른 성부의 색소폰을 선택해 색소폰 특유의 깊은 사운드와 개성을 잘 살려낸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앨범 발매 공연에서 선보였던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브랜든 죄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풍부한 감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박종해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돼 매우 기쁘다. 다양한 레파토리를 통해 깊고 풍부하면서도 섬세하고 절묘한 하모니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죄는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유학 이후 7년간 한국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피아니스트 일리야 라쉬코프스키, 김구연과 수차례 듀오 공연을 가졌으며 여수국제음악제에서 글라주노프의 색소폰 협주곡을 국내 초연하고 평창대관령음악제의 페스티벌 오페스트라 단원들이 이끄는 '고 임흥프로젝트'에 색소폰 수석으로 참여한 바 있다.

올해 라흐마니노프 콘서트 외에도 3월 창원 시립교향악단, 5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8월 경상필하모니오케스트라, 10월 한경필하모니오케스트라, 12월 광주시립교향악단 등과의 협연을 통해 앙드레 웨이그나인의 랩소디, 폴 크레스톤의 색소폰 협주곡을 비롯한 여러 색소폰 협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각국의 문화유산을 360도 가상현실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360° 서클 인 아시아'를 지난 7일부터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ACC 제공

"아시아 문화유산 가상현실로 즐기세요"

문화전당 '360° 서클 인 아시아'

고인돌·왓푸사원 등 10편 감상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유산 10곳을 360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설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 신규 콘텐츠 '360° 서클 인 아시아'를 지난 7일부터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시작했다.

'360° 서클 인 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유산을 360도 가상현실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신기술 융합 전시 콘텐츠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향유형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 결과물이다.

전시는 기존의 '아시아문화 VR'에서 선보이던 빔 투사기 기반의 원형 외벽 영상(미디어 패사드)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도입해 11K 이상의 고해상도 360도 가

상현실 영상을 제공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아시아 권역별로 구분, 한국의 고인돌·선암사·필암서원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의 히바, 라오스의 왓푸사원, 몽골의 오르흔 계곡 등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유산 10곳을 편당 3~5분 정도의 360도 가상현실 영상으로 보여준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아시아 세계문화유산을 감상하면 된다. 각각의 영상을 선택하지 않고도 전체 영상을 즐길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관람객이 아시아 각국의 문화유산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같이 느낄 수 있도록 곡면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고해상도 원형 미디어월을 아시아문화박물관에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문화유산을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17일 착공

국립나주박물관은 2025년 완공 예정인 디지털 복합문화관 착공식을 오는 17일 오후 3시 박물관 후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착공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디지털 복합문화관은 첨단기술을 문화영역에 접목한 복합 문화공간을 목표로 한다. 고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나주박물관의 특성을 살렸으며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해 건축을 디자인 했다.

디지털 복합문화관에는 공연장, 어린이박물관, 미래형 수장고와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선다. 건물 연면적은 4,393㎡(1,328평)로 주요 시설인 공연장은 300석 규모다.

완공되면 나주 반남면 일대의 고분군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공간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체험학습시설을 갖춰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미래형 수장고는 호남



디지털 복합문화관 투시도

권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최신 설비와 보관 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전남문화재단, 실버마이크 주관단체 선정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주관단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실버마이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과 그 주간에만 60세 이상 실버예술가들이 직접 만드는 공연이다.

국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하는 실버예술가(개인·단체)에게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됐다.

전남문화재단은 2022년 전남권 주관단체로

선정돼 총 83명의 실버예술가들과 20회에 걸쳐 전남 곳곳에서 공연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까지 지역을 확장해 5월부터 공연을 펼친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실버마이크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더욱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버마이크' 참여 예술가는 이달 말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ncf.or.kr) 사업공모를 확인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구하는 모든 건축물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시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경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혼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¹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뜰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육실 및 회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방수제·비닥재·흔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D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